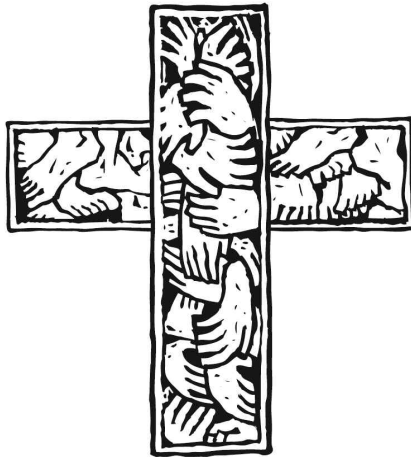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교개혁기념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10. 전능왕 오셔서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을이 깊어 가며 아름다웠던 단풍잎은 낙엽이 되어 땅으로 떨어
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
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헛되고 부질없
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종교개혁기념 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듯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꽃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탐욕과 불의와 타협하며 변질되는 것이 아니
라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이 세상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게 도와주십시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시124:7,8 인도자

- ▲ 교 독 문 104. 종교개혁주일 다 함께

-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신진식 목사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 함께

- ▲ 성경봉독 계 3:1-6 I. 인도자
II. 임당재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 I. 그분 마중물 찬양대
II.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청파 찬양대

말씀	반면교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585.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못 피조물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활력으로 이 땅을 개혁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다함께:	아멘. 나의 욕망의 소리에는 즉각 열심을 내었으나, 시들어가는 이들의 한숨에는 귀를 닫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 타락해 가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거칠어진 영혼을 다듬고, 본질을 회복하는 참민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그림으로 보는 종교개혁 이야기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늘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해바라기가 종일 얼굴을 돌려가며 해를 바라보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게 된다. 그야말로 오매불망하게 된다. ‘寤寐不忘’이 ‘잠 깰 오’(寤)에 ‘잠 잘 때’(寐), ‘아닐 불’(不)에 ‘잊을 망’(忘)이 합해진 것이니, 말 그대로 자나 깨나 잊지 못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아무리 오래 바라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즐겁고,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시간을 꿈처럼 보내다가 잠시 헤어지면 어서 다시 보고 싶고, 볼 수 없으면 꿈 속에서라도 그 얼굴을 보고 잠을 자면서도 웃는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들만 보인다. 그러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눈이 먼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이 멀어 뭘 봐도 좋은 것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 외의 나머지 세상에도 눈이 멀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방 눈이 멀었으면서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잘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외의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다. 다른 사람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도 사랑일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눈길을 빼앗기는 것은 더더욱 사랑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매불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출33:14)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겠다.”는 의미였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얼굴도 함께 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일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은 돌리고 얼굴은 돌리지 않으며’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두고 너는 나의 아비라 하고, 돌로 새겨 만든 우상을 두고 너는 나의 어미라 한다. 나무도 돌도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러나 그들은 나무를 자신의 근본으로 여기고, 돌을 자신의 근원으로 삼는다. 지도자들이 그러했으니 백성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등진 채 살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나자 주님께 돌아와 도와달라고 한다.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자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다. 평안할 때는 등을 돌리고, 어려울 때는 얼굴을 돌리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별일 없을 때는 등을 돌린 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모든 것이 어색함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그런 우리를 두고 시인 하일은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뒤통수가 아니라 얼굴이다. 일요일에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평일에도 보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언제나 보고 싶어 하듯이.

가을 하늘 아래 서면

강진규

가을 하늘 아래 서면

화살처럼 쏘히는 햇살에 맞아

늘 아프고 부끄럽더라

얼마쯤 잊어버린 죄책감을 꺼내어

맑은 물에 새로이 행궤

깃대 끝 제일 높이 매달고 싶더라

크신 분의 목소리가 내 귀에 대고

괜찮다

괜찮다고 속삭일 때까지

밤새워 참회록을 쓰고 싶더라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혜경 김기석 김희우 김기철 김도윤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a 김애순 김재환
 김진선 김경규 이종옥 김정길 최숙화 김종락 박영신 김중현 성귀옥 김지윤 정영우
 김지해 김진우 임미진 김창숙 김은종 김철수 유영남 김충실 조아라 김현동 오유경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노신후 노연정 노진래 최형경 박미희 박영희 박옥순
 박재영 이현정 박재우 정충원 박영진 박준민 최광희 박준희 이기분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손규현 오보영 송남필 송인선 송정근 이소선 신문희 신현일 심상숙 안미순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근식 신영신
 이부곤 이수자 이순용 김신실 이순이 이응석 이은경 이재우 배이화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진영 한양미 이치림 강상연 이행진 임고운 오재형 임성택 홍순위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래 장원호 박성희 조병무 송양진 조수아 최미자 최형균 강경화
 하현철 최성애 황선옥 무명1

감사헌금

강시종 김성수 김 준 김주오 김지해 김태정 김향자 민화평 김미란 오민용 오진훈
 노순옥 윤선호 임선아 이건호 김보민 이광석 이경희 이상도 이자애 이재문 장현희
 정구봉 정수복 장미란 정용구 이삼남 정학성 김현숙 채예반 최가운 최혜정 무명3

생일감사헌금

김보민 김인걸 이왕준 송상경 정상옥

녹색꿈헌금

고영희 김영호 김용길 최영혜 박영림 윤미경 윤수진 이광석

이경희 이행진 정효진 채일석 천영애 천윤기

■ **10월 14일자 헌금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새롬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b 박병구 박지혜 송병찬 이미휘 장승희 하현일 한지원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반야 문홍일 박대일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오민용 이고임 이상남 이상도
 이정우 장윤지 정용구 채일석 천영애 무명6

생일감사헌금

배삼순(남편) **녹색꿈헌금** 이고임 천윤기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종교개혁기념주일 : 오늘은 종교개혁기념 5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2. 특강 : 오늘 오후집회는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그림으로 보는 종교개혁 이야기'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3. 추수감사절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4. 감사와 환대 :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2층 로비에 '감사와 환대 포스트잇 붙이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감사한 일과 환대 받았던 경험을 짧게 적어 게시판에 붙여주세요.
5. 별세 : 지난 26일 김천희 권사님 (김재흥 목사 부친)이 별세하여 장례 중에 있습니다.
6. 신앙실천 : 지난 일 년 동안 감사했던 이들, 환대해 주었던 이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시26:1~12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기석	김광일

11월	1부 영접위원	최미자	헌금위원	하현철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장병준 이성범 권미숙 한양미 박소현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서정순		

오늘 식당 봉사	박홍재 정연희 암미순 김태정 김영희 윤성종 김태한 한상균		
다음주식당봉사	김성순 윤영미 김향자 배이화 김해순 이재우 장동훈 권혁래		
오늘설거지봉사	청파7속	다음주설거지봉사	2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4남선교회 (11월 2여)	다음 주 주차봉사	박범희